

양성판정 고지절차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다니요**

두 해 전 중소기업의 증기간부로 일하던 시절 6월과 8월 초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무 중 두 차례나 실신을 하였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가 일주일, 혹은 10여 일을 입원하면서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퇴원을 했다.

녀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자세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MRI, C/T 촬영, 엑스선 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내과,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의 합동 작전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뚜렷한 증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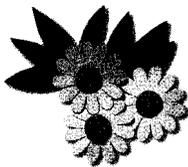
마음이 불안해지자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 S의료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두루 다니며 검진을 받아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합병증으로 당뇨까지 심해진 상태에서 재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인가를 지난 뒤의 일로만 기억되는데,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시선이 전과 같지 않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일회용 장갑을 비롯해서 마스크를 쓰고 검진을 하거나 주사나 투약을 할 때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회진 시 의사들의 행동도 이전과 같지 않게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들 역시 무엇인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있어 물어보았으나 특별한 병이 아니라며 음식만 잘 먹으면 곧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보건소 직원이 왔다갔다는 말이나 환자면회도 전과 같지 않게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여 주치의 선생님과 의 면담을 신청하고 본인도 무슨 병인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다그쳐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의사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더니 마침내 놀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혈액검사 결과에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혈액검사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대여섯 군데에 의뢰했는데 모두 양성반응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도 알고 있는나고 불었다니 그렇다고 했다. 환자의 충격이 클까봐 본인에게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도에서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허태범
감염인





- > 알 수 없는 이유로 몇차례 실신하여 입원
- > 본인은 모르는 채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사실 확인
- > 수 차례의 강한 요구로 본인이 알게 됨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본인의 의지나 허락도 없이 가족을 비롯해서 직장대표, 상사, 동료들까지 모두 알게 된 후에야 본인이 알게 된 셈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동료들과 친구들의 발길은 뚝 끊겼으며, 가족들이나 친지들과의 면회도 뜸해져갔다. 재입원한 지 한달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이었다.

감염인의 생활

국내의 HIV/AIDS 감염인들과 환자들은 관련당국의 홍보부족과 관리, 배려, 사회적 인식의 불이해 등으로 인해, 상대적 편견과 사회의 냉대 속에서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괴로워하며 생활하고 있다.

· 가족으로부터의 냉대

감염사실이 확인된 후 감염자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감염사실의 충격이 수용되고 정리되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냉대 받게 되어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 사회로부터의 고립, 격리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부정확한 사회의 인식과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감염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도 미래의 삶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재취업 등의 사회적응에 한계를 절감하여 스스로 고립되거나 격리된 채 현실을 비관하면서 폐쇄된 생활을 하기 쉽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보다는 극단적 생각(자살충동, 우울증, 대인공포증 등)에 빠져들게 된다.

· 의료혜택의 기하학적

비싼 의료비, 선별적 치료, 치료기회의 능력이나 차별 등을 감수해야 하며, 특별히 진료일 수 365일 상한제 적용 같은 현행 의료제도는 기본적으로 HIV의 감염과 함께 2차 감염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2,3종의 고통을 주고 있다. 구제방안으로 180일 이전 재진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나 진료일 수 확인에서도 본인을 제외한 보호자, 대리인의 확인이나 접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은 더욱 힘겹다.

· 성생활 통제

감염인들은 감염인들, 혹은 비감염인들과의 성적 접촉이나 관계에서도 스스로 위축되거나 사회적 시각에서 직, 간접적으로 통제받음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음성적이거나 폐쇄적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음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